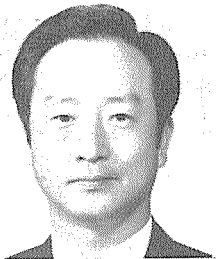


急變하는 市場與件과 電子工業의 輸出産業化 戰略



辛 國 煥
商工部 商易局長

전자공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기술변화 속도가 빠르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빠른 바, 가전제품 몇 개를 놓고 국내시장에서의 판매경쟁을 지나치게 한다는 것은 전자공업의 생태를 외면한 단기적 안목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좁은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개척자적 의지로 광활한 세계시장에서 제품과 기술경쟁을 하도록 하여야겠다.

1. 최근 輸出動向과 電子工業에 거는 기대

지난 上半期에는 輸出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景氣도 좋지 않았다. 輸出이 어려울 경우에는 國內市場을 부추켜 景氣를 좋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景氣를 活性化한다면 國際收支도 더 나빠지고 그만큼 外債負擔을 더하게 된다. 따라서 外債問題를 안고 있는 우리 經濟는 國際收支를 개선하면서 景氣를 好轉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輸出을 늘리는 以外에 다른 길이 없다.

'85上半期中 輸出은 지난해보다 4% 감소했으나 지난해 下半期 修理船舶 輸出統計 基準調整 등을 감안한다면 미미하나마 약 4% 증가하고 있다. 業種別로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全体輸出추세는 최근이 가장 높은 增加率을 보였던 작년 上半期 輸出(27.1%增加) 水準에서 소폭이나마 增加勢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上半期 輸出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요인을 살펴보면 美國 등 先進國의 景氣後退로 인해 전반적으로 輸入需要 增加가 둔화되었으며 中東, 東南亞 등 開途國 市場도 原油 및 1次商品의 價格安定으로 購買力이 심히 저하되었으며 또한 半導體 등 우리의 技術集約産業部門에 대한 先進國의 牽制와 우리 主力商品에 대한 後發 開途國의 가격공세 등으로 輸出競爭이 훨씬 尖銳化되고 있고, 특히 對美 鐵鋼類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先進國의 輸入規制가 더욱 심해진 바 위와 같은 영향은 우리만이 받는 것이 아니며 우리와 輸出競爭國인 台灣, 싱가포르 등도 이런 영향으로 대체로 輸出이 부진하다.

아울러 美弗貨의 강세 및 換率 實勢化의 지연으로 인해 上半期中 우리 商品의 價格競爭力이 열세였으며 특히 歐洲地域 通貨의 약세로 同地域에 대한 輸出이 부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美國 등 市場에서 歐洲製品과의 경쟁에서도 劣位에 있는 데도 기인한다.



전자기술의 연구개발과 신제품 생산시설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上半期 中에는 需要減退過程에서 나타나는 注文의 少量 多品種化 傾向에 적절한 대응이 不足했다. 그밖에 輸出節次를 포함한 制度的 여건이 우리의 輸出競爭國보다 硬直되어 있어 輸出附帶費用의 相對的인 부담이 對外競爭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輸出競爭力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간 物價安定 등에 따라 경쟁력이 향상된 面도 있지만 數年前에 內需 중심으로 景氣가 活性化된 결과 限定된 資源이 輸出쪽보다는 內需쪽으로 치우치게 됨에 따라 輸出産業의 投資, 研究開發 등이 다소 미흡하게 되었으며 이 결과가 輸出競爭力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不認할 수 없다.

한편 電子製品의 금년 上半期 中 輸出実績은 22억 8,000萬弗로 推定되는데 당초 기대와는 달리 前年 同期에 비하여 3.8%의 소폭 增加에 그쳤으며 특히 輸出主導品目인 半導體, C-TV 등의 輸出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經濟問題를 풀고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輸出에 突破口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下半期 輸出에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특히 電子는 우리 輸出의 큰 主力産業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輸出業界 및 우리産業에 波及效果가 크기 때문에 輸出行政을 총괄하는 筆者로서나, 國家的 次元에서도 電子의 輸出伸張

에 대한 기대가 크며 이를 담당하는 電子工業人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2. 急變하는 輸出環境과 電子工業

電子工業을 포함한 輸出環境은 밝은 面보다는 어두운 面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다. 下半期 이후 世界經濟는 美國金利의 하락 등에 힘입어 多小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保護貿易主義의 만연, 開途國의 外債問題, 主要國 通貨의 換率不安 등이 어두운 요인으로 작용하여 輸出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經濟의 對外 經濟與件이 그만큼 불리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사실 최근의 主要世界經濟予測機關에서는 85~86年의 世界 貿易伸張率은 약 5%로 전망되고 있고, 貿易赤字가 1,200億弗에 이르는 美國이 지난해 84年 通商關稅法의 制定에 이어 금년에는 輸入規制를 위한 활발한 立法 活動을 펴고 있고, 대규모 經常收支 赤字를 나타내고 있는 開途國들이 輸入規制를 강화하거나 連繫貿易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世界 貿易環境은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또한 先進國은 先進國대로 後進國은 後進國대로 自國産業의 技術優位 確保를 통한 高附加價值를 創出하기 위하여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국의 폭발적인 技術開發로 자연히 世界는 電子技術을 중심으로 第3次 産業革命이

진행되고 있다.

電子技術의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先進技術 保有國이 技術移轉을 기피하고 自國保護障壁을 높이 쌓고 있는 경향이 深化되고 있으며, 新素材 및 部品, 新施設 등에 대한 供給을 제한해 나감에 따라 比較優位에 의한 資本協力도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電子工業은 그 어느 産業보다도 技術變化가 빠르고 새로운 製品의 出現과 斜陽化가 深하다.

최근 消費者의 기호 추세에 적응한 urban 感覺, light 感覺, natural 感覺이 뛰어난 製品의 개발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의 결과 製品生産 추세가 輕·薄·短·小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가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製品이 쏟아져 나오고 가격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이제는 良質 製品을 저렴하게 供給하는 것은 우리 企業人들에 있어 最大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 市場의 不確定性和 競争性이 커지므로 技術革新도 供給側面보다도 需要側面이 더욱 重要視될 展望이다. 先進經濟大國들이 財政 및 貿易收支赤字, 高失業率 등을 이유로 自國産業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貿易規制의 남발은, 國際經濟의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 주고있다. 특히 우리와 같이 對外指向의 輸出主導政策을 宿命的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이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음은 사실이다.

C-TV 등 우리의 輸出主力品目的 경우 約40% 以上 規制下의 輸出이며, TV뿐만 아니라 磁氣 Tape, 라디오, 전자렌지, musical box 등 많은 품목이 美國, 유럽 등 先進國에서 이미 規制를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영향은 이제는 世界貿易環境의 當然한 變數로 보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國內外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企業을 계속 發展시켜 나가고 우리 産業은 단단한 盤石위에 올려 놓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면 된다」는 확고한 신념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취약점을 보완해나가고 環境을 能動的으로 개척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이 아무도 우리의 어려운 局面을 우리를 대신하여 타개해 주

지 않으며 그것은 오직 우리들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點에서 볼 때 電子工業人 여러분들이 先進國의 技術移轉 문제나 自國産業保護를 위한 保護障壁 設置, 나아가 市場開放 요구 등 국제적인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고 國際收支改善 등 經濟發展을 加速化하기 위하여는 不斷한 研究 努力으로 새로운 技術을 개발하고 「파는 상품」에서 「팔리는 상품」을 生産하여 끊임없이 需要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높은 輸入規制障壁도 가볍게 뛰어 넘을 수 있으며 치열한 國際競争에서 승리하여 우리의 輸出目標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電子工業의 輸出主力産業化를 위한 提言

電子工業의 輸出主力産業化를 위해서는 고질적인 취약점은 개선하여야 한다.

사실 電子工業部門에서 새로운 事業을 展開하거나 製品을 生産하려면 으레히 外國의 技術, 그것도 組立生産 技術을 도입하고 部品은 그대로 들여와서 國內市場을 겨냥하여 機器를 만들곤 했다.

또한 一部企業들은 國內市場에서 누가 더 큰 몫을 차지하느냐는 販賣競争에 主力하고 余力으로 輸出을 하는 등 海外進出에 소극적이기도 하였다. 독자적 研究開發에 자신이 없거나 의욕이 부족하여 研究開發投資와 高級頭腦 人力 및 高熟練技術者의 소중함에 대한 認識이 덜한 感도 없지 않다. 또한 都給系列 中小企業에 맡기면 部品の 品質과 納期를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例도 많았다.

新技術과 새로운 製品에 도전하여 世界市場을 지배하고 높은 附加價值를 내겠다는 패기도 약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電子工業人 여러분들에게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電子産業의 開發 能力을 대폭 확대하여 國際化하는 것이다. 電子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각종 機器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綜合電子企業이 미래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生産設備과 研究開發規模를 國際化해 나가도록 하

자. 이는 우리나라가 가진 資源을 最適으로 活用할 수 있는 産業이 곧 電子産業이고 이 産業에 經濟的 생존을 걸지 않을 수 없으며 電子産業의 競爭力 擴大는 宿命的인 과제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電子技術의 研究開發과 新製品 生産 技術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電子部門에 기초적으로 정립해야 할 技術과 새로운 製品開發 技術에 대하여 共同化, 協同化를 통하여 先進技術 도입과 研究開發을 조화시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電子工業의 發展의 원동력인 技術 및 技能人力 양성에 모든 精力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째는 우리 電子工業 中 많은 취약점을 가진 部品과 素材를 획기적으로 개발하여 國際部品 供給基地를 構築하여야만 한다. 電子工業의 國際競爭力이 튼튼해지려면 部品の 調達이 원활하고 완벽한 系列化 体制과 Software 및 Design 능력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電子工業은 素材, 部品, 組立, System內에 迂回도가 높은 産業이며 이러한 産業에 있어서의 競爭力은 關聯企業과 市場이 일체감으로 뭉치고 협조하는데에 솟아날 수 있는 것이다. 組立企業과 部品, 素材企業間의 系列, 協力体制가 다져지고 同業人間에는 共同 協力開發 풍토가 조성되는 産業環境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다.

네째는 對內外的인 競爭과 開放化時代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海外市場을 개척해 나아가야 한다. 電子工業人은 國內市場과 海外市場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겠다. 世界市場이 곧 우리의 市場이며, 國內市場은 世界市場의 일부로 개방되어 있다고 보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經營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최근 展開되고 있는 開放과 自律化의 도도한 물결을 타고 거센 國際競爭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電子工業人 스스로가 기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지난날처럼 國際市場 保護를 前提로 事業을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競爭에 뒤지게 될 것이다.

電子工業은 어느 産業보다도 技術變化 속도가 빠르고, 製品의 Life Cycle이 빠른바, 家電製品 몇 개를 놓고 國內市場에서의 販賣競爭을 지나치게 한다는 것은 電子工業의 생태를 외면

한 短期的 안목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좁은 國內市場에서 벗어나 開拓者의 의지로 광활한 世界市場에서 製品과 技術競爭을 하도록 하여야겠다. 물론 많은 電子企業人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製品을 개발하고 世界市場에 더욱 넓고 깊게 進出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깊은 關心을 가지고 많은 努力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商工部에서도 電子工業의 下半期 輸出에 차질이 없고 86年代以後 輸出主導産業으로서 우리 經濟를 先導해 나갈 수 있도록 商工部 輸出 担当官과, 電子工業振興會, 貿易協會 등 輸出 支援機關의 輸出支援 활동을 강화하고 電子輸出 業界가 활기가 넘치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 電子輸出業체가 날로 치열해가는 海外競爭에 機動性있게 輸出을 移行할 수 있도록 輸出節次를 간소화하여 輸出附帶費用을 크게 줄여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輸出市場 開拓活動과 政府 및 企業의 對外 通商交涉 활동을 확대하고 日本市場에 대한 소규모 專門 세일즈班 派遣 등 집중적인 市場浸透을 하는 동시에 香港地域의 輸出活動을 강화토록 할 것이다. 또한 換率, 金融 및 原資材供給 등 일반적인 輸出條件도 國際競爭에 차질이 없도록 수시로 補完해 가도록 하겠다. 이러한 下半期 輸出促進 對策과 아울러 '88年 500億弗 輸出中間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中期 輸出 개선 및 體質強化 대책도 함께 추진코자 한다.

이외에 輸出 業체의 설비 능력의 보강, 技術, 品質, 生産性面의 경쟁력 提高를 위한 支援方案과 輸出市場 전략을 再整備, 구체화하고 先進 貿易國家로의 이전을 위해 각종 制度와 貫行의 國際化·先進化를 위한 細部 實踐方案을 망라토록 하겠다.

지금 우리 輸出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하겠다. 그동안 電子工業人들의 복잡한 對內外 情報變化에 따른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不屈의 意志와 創造的 開拓精神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당면한 經濟的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智慧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商工部에서도 電子工業人 여러분과의 긴밀한 協調下에 輸出總力戰을 전개할 것을 약속드린다.